

## 내과 수의사의 재미있는 피부질환 이야기

## 일차병변의 이차병변화: 피부에는 “Police line”이 없다

송 치 윤

해마루 동물병원

수의내과학 석사

Cysong@haemaru.co.kr



※본격적인 글 작성에 앞서 본 연재글은 학술기고글이 아니며 에세이 형식의 기고글임을 밝힙니다.

지난 호에서 피부병변의 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Papule과 Plaque라는 일차병변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시죠? 일차병변은무엇인지 이차병변은 또 뭘지 기억이 가물가물, 날랑말랑 한가요? 아마도 복습하지 않으셨던 대다수의 선생님들께서 그럴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에지난 호에서 다뤘던 내용을아주 간단하게 정리 해보도록 할게요.

피부병변은 일차병변과 이차병변으로 구분되는데 일차병변(Primary skin lesion)이 피부질환에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만들어진 병변이라면, 이차병변(secondary skin lesion)은 일차병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Regression되어 모양이 변하여 생긴 병변 혹은 환자에 의해 Artifact로 발생한 병변을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들어 세균감염성으로 생긴 Papule이 세균에 의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일차병변이라면 감염이 된 부분에 소양감을 느낀 환자가 긁어서 생긴 Excoriation은 이차병변(환자가 긁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병변이니깐요)이 되는 것이죠.

뉴스나 영화들을 통해 범죄현장에서 증거 보전을 위해 현장을 노란색 테이프로 칭칭 감아둔 Police line 많이들 보셨죠? 아무래도 범인(피부질환)을 잡으려면 범죄현장(피부)를 잘 보존해서 증거(피부병변)가 소실되는 것을 막아야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개님, 냥님들은 절대 범죄현장을 그대로 남겨두는 법이 없습니다. 물고, 빨고, 핥고, 씹고, 비비고... 혹여 환자들이 피부질환이 남겨둔 범행현장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인이 남겨놓은 우리의 소중한 증거

(일차병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이차병변으로 스스로 시나브로, 시나브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림1. 피부진료를 할 때에도 Police line이 있어서 피부병변이 그대로 보존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진단율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난 호에서 다뤘던 Papule, Plaque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서 임상가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피부병변중 하나인 “Papule의 이차병변”에 대해서 다뤄보려 합니다. 여기서 잠깐!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흘렸지만, 일차병변이 이차병변화 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다보니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흘렸지만 사실 병변의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반대로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Papule을 “피부아래 무언가 차있는 구조”라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언가는 주로 염증세포일 거예요. 이제 막 염증세포가 침윤하고 있는 초기 상태를 Papule이라고 해볼게요. 자꾸 제한된 공간에 무엇인가가 차오르다 보면 결국에는 터지게 되겠죠? 터지게 되면 그 안에서 세포간질액이 되었건, 염증세포나 괴사조직이

되었건 내용물이 흘러나오게 되고,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갖가지 물질들이 말라비틀어져서 딱지(Crust)가 생기게 됩니다. 딱지가 무한정 피부에 붙어 있지는 않을 것이니 언젠가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 떨어지게 되면 딱지가 붙어 있던 자리에 흔적이 남겠죠? 그 흔적이 바로 표피잔고리반(Epidermal Collarette, 그림2)입니다. Papule의 2차병변들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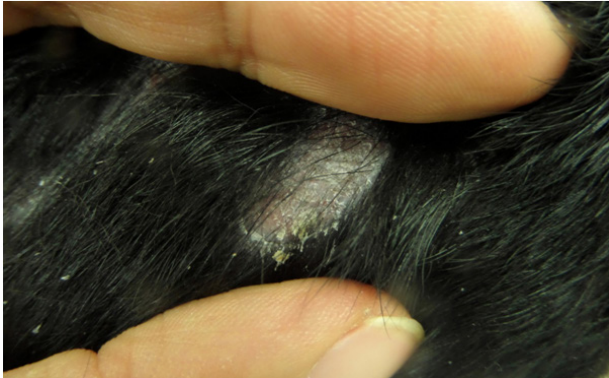


그림2. 표피잔고리반(Epidermal collarette). 주의할점은 papule이 crust와 epidermal collarette이 된다고 두 병변이 "Papule에 의해서만" 생긴다고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Crust와 Epidermal collarette는 그 나름의 DDx list가 존재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 2가지. 첫째, papule이 무조건 crust를 지나 epidermal collarette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Papule에서 그대로 소실되어 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 하나! Crust와 epidermal collarette이 반드시 papule에만 링크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다른 병변도 crust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요것 두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케이스 하나 보고갈까요?

#Case.1



그림3. 사진에서 보이는 병변은 Papule. 본 case1환자의 병변부사진.

13세령의 중성화한 수컷 요크셔테리어 환자가 피부질환을 주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피부질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의뢰병원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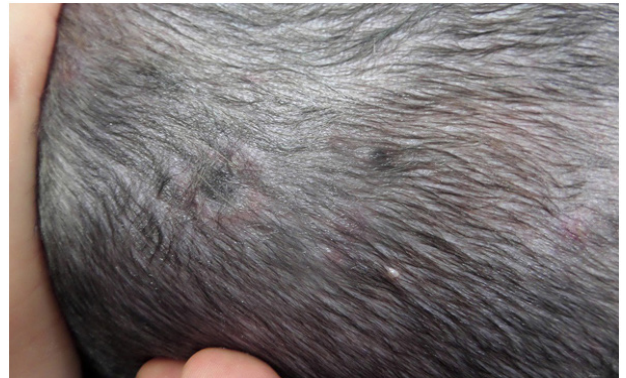


그림4. 사진에서 보이는 병변중 울퉁불퉁 움기된 병변이 Papule. Case1환자의 병변부사진



그림5. 사진에서 보이는 병변은 epidermal collarette로 진행하고 있는 crust. Case1환자의병변부 사진

cephalexin과 PDS를 저용량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소양감은 심한 상태였는데, 4~5년 정도 전부터 반복적으로 현재의 병변이 반복되고 있었고 10일정도 현재 약물 사용시 크게 소양감 감소등의 임상증상 개선이 없었다고 합니다.

피부병변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제 나름의 사고방법을 설명드려볼게요. Epidermal collarette은 이차병변이고 Crust는 상황에 따라 Primary와 secondary모두 가능한병변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차병변으로 발생하고 일차병변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Primary seborrhea등의 Prevalence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질환에서 발생하지요). 이차병변이 보이면 그 이차병변을 만들 수 있는 일차병변이 있는지 훑어 봅니다. 이 환자의 경우 전신적으로 Papule이 존재하고 있었고 Papule이 터지면 epidermal collarette이 될 수 있으니 Papule로 epidermal collarette의 존재를설명가능합니다. 그림 이 환자에서 epidermal collarette의 원형은 papule이기 때문에 두가지 병변은 하나의 병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Crust가 문제인데 Crust는 papule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한편으론 일차병변도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환자는 papule이 왜 발생했는지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Papule과 epidermal collarette이 소실될 때



crust가 남아있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 되시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Papule의 원인에 준한 처치를 할 때 같이 없어지면 이 환자의 Crust는 papule에 의해 발생한 이차병변이고 없어지지 않고 잔존한다면 Crust의 원인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원인 파악이나 피부검사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 친구의 주병변은 Papule이 되는 것이고 Papule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Papule의 Ddx를 먼저 기억하시고! 피부기본검사는 피부압착도말(impression smear)을 진행하면 된다는 거 알고계시죠? 이 환자도 피부압착도말을 진행했고 결과는 그림6과 같았습니다. 바탕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는 구균들, 전형적인 농피증 병변이었습니다.

의뢰병원 원장님도 아마 농피증이라고 생각하고 약물을 쓰셨던 것 같은데, 약을 썼는데도 반응이 없으니 조금 자신감이 없어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피부기본검사를 진행해서 정말 그 병변이 농피증에 의해 발생했다고 확인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의뢰를 보내시기보다는 약을 좀 더 쓰면서 반응을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주호소를 선생님들께서 내린 진단으로 모두 설명가능한지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친구는 세균성 피부질환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자의 주호소인 소양감이 이 질환으로 설명이 될까요? 농피증의 경우 정도에 따라 심한 소양감을 유발할 수도 있는 질환이므로 소양감까지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진단으로 모든 증상과 병변이 설명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저는 생각한답니다.

문진상 이 환자는 반복적으로 현재와 동일한 병변이 발생했고, 금일 검사상 그 원인체가 구균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Normal flora인 Staphylococcus pseudintermedius의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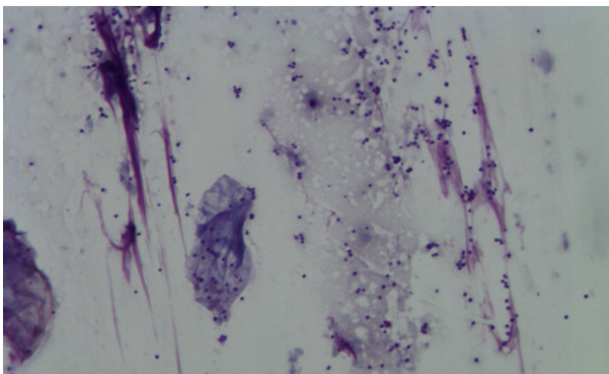


그림6. 피부압착도말시 다량의 구균이 관찰되었다

적인 과증식이라는 것인데, 원리상 반드시 기저질환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찾아서 교정해 주는 것 까지가 수의사의 몫이겠네요.



그림7. 프랑스 명품브랜드 에르메스의 로고

프랑스의 명품브랜드 에르메스는 엄청난 고가의 핸드백으로 유명한데요 브랜드의 로고를 보면 말과 마차가 보입니다. 과거 말의 안장을 만드는 회사에서 시작해서 산업화 이후 자동차의 대량생산과 더불어 피혁제품을 만들면서 성장한 브랜드라서 로고를 그렇게 형성화 한 것입니다. 로고의 배경을 알고나니 더 고급져(?)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 지나가면서 제 컴퓨터 화면을 본내과 여자선생님이 한 말씀하고 지나가시네요. 에르메스는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가방이 아니라고... 실적을 쌓아서 일정 레벨이 되어 가방을 신청할 수 있고, 그것도 받기 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고.

어떻게 보면 오만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자신감인데, 이런 브랜드들은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광고도 많고 일 반적으로 저희가 접하는 상업적인 광고와는 사뭇 다른 광고 카피를 사용합니다. 뭔가 철학적인 그런 문구를 광고 카피로 많이 사용하는데 에르메스도 그 중에 하나고, Bag은 백개를 주더라도 관심이 없는 저의 뇌리에도 박혀있는 이 브랜드의 광고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는 것은 없다.

과장을 조금 보태면 처음 이 카피를 보았을 때 전율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율도 잠시... 직업병이 도지더군요. 이거 완전 피부질환 이야기잖아? 하고 말입니다.

피부병변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그 피부병변을 유발한 피부질환이 바뀐 것은 아니죠. 농피증에 의해 생긴 Papule은 epidermal collarette가 되지만 원인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병변은 수시로 바뀝니다. 피부에는 police line이 없으니까요. 사진을 통한 병변의 분석은 어디까지나 Ddx list를 좁히는! 딱 거기까지만 사용되어야 하고 그 것을 통한 확진 및 치료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구요?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